



보성군, 북부 4개면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추진 박차

복내·문덕·겸백·율어면 지방 상수도 신설

보성군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인 북부 4개면(복내, 문덕, 겸백, 율어)을 대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 2030년까지 485억 원을 투자하여 북부4개면 지방 상수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0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하여 북내면과 율어면을 중심으로 기본 정비를 실시한다. 취수장

(1,320톤/일), 정수장(1,200톤/일), 배수지(650㎥), 가압장, 관로(37.1km)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3월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북부4개면은 미을 단위로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하여 생활용수 및 식수로 사용해 왔다. 이에 북부4개면에 지방 상수도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수량이 고갈되고 기후변화로 수질도 악화되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485억 원을 투입하여 북부4개면에 지방상수도를 공급 할 계획이고, 미을 상수도의 원수 고갈, 수질 부적합 지역에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단계별로 지방 상수도로 전환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허석 순천시장,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대화 운영

도사동 대대지구 숙원사업 현장 시작으로 매월 2회 이상 개최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도사동 대대지구 숙원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며 민생현장 소통행보에 나섰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 대대동 신석마을 주차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신석마을회관 건립 협

장, 대대동 마을안길 소방도로 확장 구간(동편~신석), 소공원 사업, 주차장 신설건의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신석마을 주차장 현장에서는 대

대동 발전위원회, 주민 등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이 숙원사업 현황을 듣고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허석 시장과 주민 간 자유로운 대화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대화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에 민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 7기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라는 시정 목표에 따라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민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주민불편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현장방문을 매달 2회 이상 정례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고유 생물종 서식환경 개선 박차

순천시는 생태계 보고로 널리 알려진 순천만의 고유 생물종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양미역취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순천만 인근에서 서식하던 양미역취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동천을 따라 도심근처까지 확대됨에 따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

해 지난 5월부터 인력을 투입해 뿌리까지 직접 제거하고 있다.

시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순천만 식물생태계의 대표 교란종인 양미역취는 가을철에 유제꽃과 유사한 노란 꽃이 피어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꽃가루와 뿌리를 통한 서식지를 확대, 토종 식물의 서식을 방해하고 있어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남도의 도비를 지원 받아 제거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순천시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자생식물을 발굴, 식재하는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에 맞는 행정을 추진한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사랑모아 쿠폰’으로 작은 나눔의 기쁨 누리세요

쿠폰함 시청, 광양읍·중마동 민원실에 비치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기부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중인 ‘사랑모아 쿠폰함’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식 회망복지지원팀장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을 춤출하게 관리하고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들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할 때 개인 사비를 이용해 필요한 것을 전달하곤 했다”며 “이번 ‘사랑모아 쿠폰함’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소액기부 참여를 늘리고, 어려운 가정에 행복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도 큰 기쁨으로 나누고, 더불어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사회적으로 위기 가정으로 인한 가정 불교와 1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추세에 맞춰 긴급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OK기동대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일상생활 속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진상시장 옛 영광 회복에 나선다

시설현대화 사업 본격 착수

광양시는 진상시장을 1970~80년대의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진상5일시장은 광양시의 동부권에서는 가장 번성한 시장이었으나 진상면소재지 외곽으로 직선도로가 나면서 면소재지와 시장의 상권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7월 16일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 시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

현재 진상5일시장은 3,8일마다 열리고 있으며, 점포 없이 2010년에 세워진 206㎡ 모의 장옥에서 3

~5명의 상인이 의류, 채소, 생선 등을 팔고 있다.

그동안 진상면민들은 진상면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진상시장 복원을 위해 광양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이어, 시는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시설현대화사업 태당성용역을 의뢰한데 이어 2016년에는 시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또 건축 설계에 앞서 시장 입점 수요조사를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의 규모와 건물의 배치, 점포의 크기, 업종구성 등 시장 조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마련해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상시장에 입점을 원하는 상인은 수요조사 기간 신청서를 시청 지역경제과나 진상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입점신청서 양식은 광양시내 5개 상인회 사무실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입점신청은 진상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입점 신청 절차가 미루리되면 입점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비 입점자를 선정하고,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부터 예비 입점자를 위한 맞춤형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장흥군, ‘귀농인의 집’ 조성 완료

장흥군 대상 자격은 장흥군으로 전입 후 1년 이내의 세대(가구)이며, 임대료 월 6~14만 원으로 3~6개월 간 생활 가능하다.

‘귀농인의 집’은 예비 귀농인이 안정적인 거주지 및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임주 대상 자격은 장흥군으로 전입 후 1년 이내의 세대(가구)이며, 임대료 월 6~14만 원으로 3~6개월 간 생활 가능하다.

장흥군은 귀농 초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지 선택 및 현지 적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통해 정착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 운영 외에도 영농기반 자금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건 관계기관 전문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기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 및 근로자 권리보호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지 안내